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부터 건강걷기 활성화까지

시민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만든다'... 보건 기관 기능 강화

시는 1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472㎡, 지상 2층 규모로 현 보건소 주차장 부지에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준공해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자살 예방사업,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시는 북면보건지소와 백운보건지소, 두 전보건지소를 개보수해 진료실과 건강증진실을 확충하고 환경도 개선했다.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최신장비를 구입했다. 미세먼지와 공기감염 전염병으로부터 방문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의료취약지역에 관절염 치료기를 비치했다.

2020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6억4000만원을 확보해 감곡보건지소 증축과 덕천보건지소 개·보수 등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구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골든타임 사수... 시민 생명보호 위한 서남권 지역 응급의료센터 구축

정읍, 고창, 부안 등 서남권 지역은 응급의료센터의 부재로 응급상황 발생 시 원거리를 이용해야 했다. 이로 인한 골든타임 지연으로 사망과 후유증이 발생하고 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아왔다.

이에 시는 국비 17억 원을 확보, 총사업비 21억6100만원을 투입해 아산병원에 응급실 증축과 리모델링, X-RAY, 초음파검사기, 환자감시기 등 시설 확충과 장비보강으로 응급의료센터 기준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정읍아산병원에는 오는 12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예정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전문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전망이다. 골든타임 사수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안심하세요'...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정읍 '속도'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어진다. 점에서 무척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안심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시립요양병원에 치매 전문병동을 증축해 치매 안심 병원을 운영한다. 올해 연말 완공 예정으로 치매 환자 돌봄이나 치료의 전문화,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의료비·요양비 부담 완화 등 치매로 인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시는 금봉동 노인복지타운 내 치매안심센



- 보건의료 환경 개선
-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구축
- 치매 안심병원 운영
- 시민 금연 분위기 조성
- 시민 주도 걷기 운동
- 정신질환 대상자 집중관리

터 신축계획을 수립(17.8.21)하고 2017년 12월부터 보건소 2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 예방·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조기 검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시행해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과 등록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환자 돌봄에 따른 부담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치매 증상에 대한 상황별 대처법을 배울 수 있도록 치매 가족 상담, 헤이랍가족교실, 자조 모임을 운영 중이며 치매 환자를 위해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과 위생 소모품 등 조호물품 지원, 치매 검사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담배와의 전쟁... '담배로부터 건강한 정읍 만들기'

시는 흡연을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과 관계기관이 연계한 금연 등록자 관리결과 2018년도 18.3%로 2017년도 21.5% 대비 3.25%의 흡연을 감소의 성과를 거뒀다.

사업추진 전략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의료인 금연 권고를 통한 금연시도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금연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고,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금연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또, 흡연율은 높고 금연시도율이 낮은 청장년층과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미취학 어린이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한 아동극을 실시,



- ① 치매예방 인식 교육
- ② 보건의 날 기념식
- ③ 금연 교육
- ④ 다함께 건강걷기 발대식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실 운영과 흡연 예방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의지와 동기를 부여했다.

시는 금연에 대한 사회적 유도와 지역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금연시설 지도점검과 흡연자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민이 주도하는 '다 함께 건강걷기' 걷기 운동

시는 바쁜 일상으로 신체활동은 줄고, 식습관 변화 등으로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걷기사업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7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이 주도하는 다 함께 건강걷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또, 생활터별 걷기동아리 총 63개 팀 1,107명을 구성해 자율적인 걷기운동 실천을 유도하고 올바른 걷기운동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16시간의 걷기운동 전문가 교육도 진행했다.

시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을 구축해 건강 도시 분위기 조성 및 앱을 통한 객관적인 건강생활 실천현황 분석으로 건강증진사업 전략 수립에도 활용한다. 또한, 생활터 건강걷기 환경조성을 위해 '건강 계단 환경조성 사업' 등 시민들의 걷기 인식개선과 신체활동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쁜 마음 쓰달쓰달'... 정신질환 대상자 발굴·집중관리로 안전망 확보

최근 조현병 환자 등의 범죄로 긴급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정신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해 환자를 발굴하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해 그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개별교육과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자기조절능력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안착을 돕고 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응급출동을 통한 조기 개입을 위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정신질환자의 조기·집중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행정인원, 응급인원 비용,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 가족 모두가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6만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희망찬 부안을 위해 항상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겠습니다

• 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19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 11.12(화)~12.12(목)

• 20년도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등 의안 심의

의회 부안군의회